

# '미쓰비시 징용 승소' 뒤에 민변 있었다

### 김&장과 6년 싸움 잇따라 승소 오늘 광주지법 3차 항소심 선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변호사 22명에 감사패 전달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증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할머니들이 법정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22명의 변호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미쓰비시가 고통한 국내 최대 로펌

'김&장'에 맞서 잇따라 승소를 이끌어내며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줬다. 3차례에 걸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마무리하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 지원해 준 변호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3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동명동 카페 '어느 멋진 날'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원고 대리인단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린다. 이 감사패에는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22명(강부원·김상훈·김정우·김정호·김정희·김현우·문영근·박인동·박지현·소병선·오대환·이상갑·이상숙·이소아·임선숙·임태호·정다은·정인기·최복·최정희·홍지은·홍현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사연은 지난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고서야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은 2009년 10월 광주시청 맞은편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시작된 '미쓰비시 사죄, 배상 촉구 1인 시위'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고, 매주 월요일 2명씩 할머니들의 곁을 지켰다. 당시 민변 광주전남지부를 맡았던 이상갑 변호사는 16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쓰비시 측과의 협상(2010년 11월~2012년 7월)에서 피해자 측 대표를 맡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양금액 할머니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상갑·김정희 변호사를 비롯해 1위 시위를 함께 했던 변호사 22명은 기거이 대리인을 자청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쓰비시 측은

'김&장'을 앞세워 한일청구권 협상(1965)에 따라 개인 청구권을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2013년 11월)과 2심(2015년 6월) 모두 할머니들이 승소했지만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은 계류되며 3년이 흐른 뒤에야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상갑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승소 판결을 현장에서 지켜 본 김성주(89) 할머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동안 함께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4일 광주지법 항소부 303호 법정에서는 김영옥(84)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일본 사망 당시 13세)씨의 유족이 제기한 3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선고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파 대비 조경수 바람막이 1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우역 앞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한파에 따른 동해를 대비하기 위해 조경수 주변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부패 신고 포상금 상한 2억으로 상향 신고기한도 5년으로 늘려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자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올리고 신고기한도 최장 5년으로 연장한다. 교육청 공무원, 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사립유치원 교직원 부조리도 신고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익 신고,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와 관련하여는 기존 신고기한 2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의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정했다. 부패 신고 대상 공직자에는 교육청 공무원, 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된다. 사립학교로 분류되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역시 적용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전담(익명) 게시판에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자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초등학생 희망직업 '유튜버' 10위권 진입...1위는 운동선수

### 5년 1위 교사, 2위로 밀려 중·고생은 여전히 교사 1위

초등학생 희망직업 순위를 집계한 조사에서 운동선수가 1위에 올랐다. 5년간 1위를 차지했던 교사는 2위로, 과학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유튜버(인터넷방송진행자)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7265명, 학부모 1만7821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벌인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9.8%의 선택을 받은 운동선수였다. 2위는 교사(8.7%)였다.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의사, 조리사(요리사), 인터넷방송진행자, 경찰, 법률전문가, 가수, 프로그래머, 제과·제빵사가 되고 싶어했다.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직업 10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학생 희망직업은 교사가 1위였다. 경찰, 의사, 운동선수, 조리사(요리사), 뷰티디자이너, 군인, 공무원, 연주·작곡가, 컴

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가 뒤를 이었다. 고교생 희망직업 1위도 교사였다. 이어 간호사, 경찰관, 뷰티 디자이너, 군인, 건축가·건축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항공기승무원, 공무원 순이었다. 중·고교생 모두 뷰티 디자이너가 새로 10위 안에 들었다. 공무원은 3년만에 고교생 희망직업 10위에 복귀했다.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좋아해서'(초 56.3%·중 51.8%·고 48.6%)와 '내가 잘할 수 있어서'(초 16.6%·중 19.6%·고 21.4%)가 1위와 2위였다. /김형호 기자 kh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달뜨기 12:17  
해질 17:21    달짐 23:32

불조심하세요  
대체로 맑겠으나 눈발 날리는 곳 있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광주	맑음	-3/5	보성	맑음	-5/5
목포	맑음	-1/5	순천	맑음	-2/6
여수	맑음	-1/6	영광	눈은뒤꿈	-4/3
나주	맑음	-4/5	진도	맑음	-1/4
완도	맑음	0/6	전주	맑음	-5/3
구례	맑음	-5/5	군산	맑음	-4/3
강진	맑음	-2/5	남원	맑음	-6/4
해남	맑음	-3/4	흑산도	구름맑음	3/5
장성	맑음	-4/4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0.5~1.5
	면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0~2.5
면바다(서)	면바다(서)	북서~북	1.5~3.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 눈음: 뇌졸중
- 눈음: 감기
-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14	05:56
여수	--:--	18:34
	06:37	00:43
	19:54	13:20

◇주간 날씨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	☁	☁	☀	☀	☁	☁
-5/8	-1/7	1/8	0/9	1/10	3/11	5/10

## 강한 바람 체감온도 푹...주말 광주·전남 강추위 엄습

14·15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16일 한차례 비가 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발해안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14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 북부 서해안 일부지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1cm 미만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이후 15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진 후 기압골의 영향으로 16일 비가

올 것"이라고 13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북서쪽의 찬공기의 영향으로 14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6~0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평년기온(최저기온 영하 2.3~1.9도, 최고기온 7.9~9.6도)보다 1~4도 낮아 춥겠다. 15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경찰청 4년만에 '경찰의 별' 경무관 배출

### 이명호 정보과장 승진 호남출신 4명 등 전국 15명

전남지방경찰청이 4년 만에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을 배출했다. 광주·전남 2명 등 호남권에서 4명이 경무관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은 13일 "박지영 본청 감찰담당관 등 총경급 15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호남출신으로는 이명호(간부후보 38기·고흥·순천) 전남청 정보과장을 비롯한 박지영(간부후보 41기·광주·광주 승

진) 본청 감찰담당관, 최중문(경찰대 4기·전북 정읍·남강)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이형세(경찰대 6기·전북 군산·원광) 본청 수사구조개혁단 등 4명이다. 이명호 경무관 예정자는 이번 인사에서 광주·전남청 총경 중 유일하게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개청 이래 6번째다. 승진자 15명의 출신지역은 서울·수도권 2명, 충청 3명, 호남 4명, 영남 6명이며, 경찰대 9명, 간부후보 4명, 고시 특채 1명, 일반 1명이다. 여성도 1명 포함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색  
오  
感

순창이 참 좋단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